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키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한나, 한정원^{2*}

¹창원대학교 간호학과, ²고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Gain and Strai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erceived by Dual-income Parents on Parent's Happiness

Hanna Lee¹, Jeong-Won Han^{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2015) 8차 년도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62쌍의 부모 중 맞벌이를 하는 부모 630쌍이었으며,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하여 중재와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하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patterns of dual-income parents' happiness by confirming the eff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recognized by dual-income parents on parenta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30 pairs of dual-income parents out of 1462 pairs of parent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main questionnaire and in the mother and father questionnaires in the 8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5), and the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gain and strain of parents' work-family reconciliation had an actor effect on parents' happiness, and the gain and strain of father work-family reconciliation had a partner effect on mother's happines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intervention and program development that could increase the happiness of dual-income par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dual-income par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tervention and education. In the future, we propose a study to confirm changes in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s' happiness according to time.

Keywords : Parents, Work, Family, Happiness, APIM

본 연구는 2018년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n Han(Kosin Univ.)

Tel: +82-51-990-2384 email: hjw0721@kosin.ac.kr

Received May 29, 2018

Revised June 5,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적 수준의 삶의 목표를 넘어서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UN (United Nations)과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1인당 GDP (Gross Domestic Product)로 측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행복지수로 측정하고 있다[1]. 특히 아동기의 행복감은 성인기와 노년기의 행복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모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부모가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게 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아동은 사회적·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3]. 결국 국민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3].

부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상황적 요인들과 하향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황적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설명되어지는 외적인 요인들을 의미하며 하향적 요인들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 및 관계적 변인을 의미한다[4]. 과거에는 소득, 학력, 직업,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상황적 요인들이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상황적 요인과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연구[4]에 의하면 상황적 요인들은 선행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하향적인 요인들이 상황적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하향적 요인들로는 자아존중감, 낙천성, 자율성, 우울, 불안, 부모-자녀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4.9%로 나타났으며[6], 맞벌이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지적인 요인이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하향적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 담당자인 어머니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고, 일과 가정에 대한 갈등이 어머니의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 또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 아버지들도 육아와 가사분담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과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8].

맞벌이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과 부정적인 측면이 설명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인식하고 있다[9].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0]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추세이며,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사와 자녀양육 활동을 일터에서의 어떠한 활동보다도 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의 일-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아버지의 일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12] 역할기능[13], 양육스트레스[14], 양육참여도[15]가 아버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16] 자녀의 수[17], 우울[18], 부모의 성격, 자녀와의 관계[19]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는 것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배우자는 부부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사람이자, 양방향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복감과 같이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부모를 한 단위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20]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행복감을 확인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행복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 2)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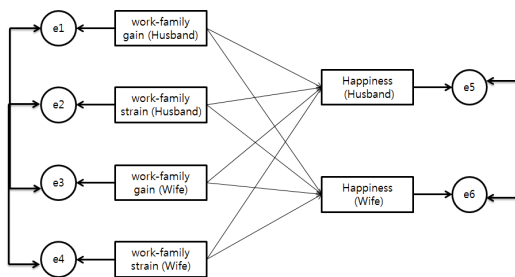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2015) 8차 년도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62쌍의 부모 중 맞벌이를 하는 부모 총 630쌍을 최종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630쌍의 부모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2015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을 선정하였다.

2.3.2 일-가정 양립의 이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Marshall과 Barnett (1993)[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1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이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arshall과 Barnett (1993)의 연구[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아버지)과 .86(어머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아버지)과 .91(어머니)이었다.

2.3.3 일-가정 양립의 갈등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Marshall과 Barnett (1993)[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15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갈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arshall과 Barnett (1993)의 연구[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아버지)-.81(어머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아버지)과 .90(어머니)이었다.

2.3.4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행복감은 Lyubomirsky과 Lepper(1999)[22]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4문항(7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yubomirsky과 Lepper(1999)의 연구[22]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4-.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아버지)과 .91(어머니)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8(아버지)과 .90(어머니)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제공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들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1040549-180331-SB-0036-01) 시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과 AMO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평균 연령 40.31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 37.89세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48명(525.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310명(4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군에서 중에서는 관리자 및 사무직이 325명(51.6%), 어머니의 경우도 관리자 및 사무직이 422명(6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80.0개월이며, 아동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가 318명(50.5%), 여아인 경우가 312명(49.5%)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630 dyads)			
		Father		Mother	
		n	%	n	%
Age (yr)	≤35	65	10.3	158	25.1
	36-40	279	44.3	342	54.3
	41-45	218	34.6	104	16.5
	≥46	68	10.8	26	4.1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	0.5	2	0.3
	high school	147	23.3	145	23.0
	College	132	21.0	173	27.5
	Over bachelor's degree	348	55.2	310	49.2
Occupation	Manager or white collar job	325	51.6	422	67.0
	Service sector or sales person	96	15.2	122	19.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9	1.4	2	0.3
	Engineer or machine fabricators	161	25.6	21	3.3
	Simple labor	19	3.0	25	4.0
	Others	20	3.2	38	6.0
Age of Child (month)		88.0±1.53			
Sex of Child	Male	318(50.5)			
	Female	312(49.5)			

3.2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의 정도

각 측정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아버지가 평균 3.73점으로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평균 5.31점으로 아버지의 행복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of father and mother (N=630 dyads)

Variables	Father			Mother		
	M±SD	Skewness	Kurtosis	M±SD	Skewness	Kurtosis
Work-family gain	3.73±0.56	-0.15	0.08	3.65±0.52	-0.27	0.80
Work-family strain	2.42±0.59	-0.01	-0.12	2.74±0.66	-0.08	-0.15
Happiness	5.27±1.02	-0.12	-0.61	5.31±1.03	-0.49	0.2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630 dyad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1: Work-family gain (Father)	1					
X2: Work-family strain (Father)	-.38	1				
X3: Work-family gain (Mother)	.20	-.13	1			
X4: Work-family strain (Mother)	-.12	.14	-.34	1		
X5: Happiness (Father)	.47	-.41	.15	-.10	1	
X6: Happiness (Mother)	.26	-.28	.30	-.24	.39	1

*p<0.001

Table 4. Estimates of variabl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630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B	S.E	C.R	p
Work-family gain (Husband)	---->	Happiness (Husband)	.37	.67	.06	9.71	<0.001
Work-family strain (Husband)	---->		-.25	-.45	.07	-6.75	<.001
Work-family gain (Wife)	---->		.04	.08	.07	1.02	.306
Work-family strain (Wife)	---->		-.01	-.02	.05	-0.13	.897
Work-family gain (Husband)	---->	Happiness (Wife)	.13	.26	.07	3.16	.002
Work-family strain (Husband)	---->		-.18	-.31	.07	-4.47	<.001
Work-family gain (Wife)	---->		.21	.40	.08	5.13	<.001
Work-family strain (Wife)	---->		-.13	-.20	.06	-3.17	.002

CR=Critical ration, S.E=Standard error

3.3 측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측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80$, $NFI=0.99$, $CFI=0.99$, $TLI=0.99$, $RMSEA=0.05$ 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아버지 $\beta = .37$, $p < .001$; 어머니 $\beta = .21$,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도 행복감에 자기 효과(아버지 $\beta = -.25$, $p < .001$; 어머니 $\beta = -.1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beta = .13$, $p = .002$)과 갈등($\beta = -.18$, $p < .001$)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아버지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시행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선행연구[9]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연령과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어머니의 사회활동 이유가 자아실현의 욕구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스트레스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

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23]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모가 인지하는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를 접하는 의료인들은 맞벌이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가정 양립이 개인에게 성취감이나 보람과 같이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점을 안겨주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갈등도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 부모가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맞벌이 부모에게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 가정에서 직장으로 전이되는 긴장감들은 직무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9]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부모의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를 접하는 의료인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모색함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아버지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를 한 단위로 형성하여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의 일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1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정과 일 양립의 태도나 인식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므로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한 단위로 구성하여 중재와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아버지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부분은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근거로 하여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연구결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행복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및 행복감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하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Shin, H. S. Choi, "An analysis of trends in studies relating to early childhoo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4, no. 1, pp. 5-28, 2014.
- [2] S. Y. Lee, C. S. Ryu, "A Study on the happiness of the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 15, no. 3, pp. 303-321, 2016. DOI: <http://dx.doi.org/10.21183/kjcm.2016.09.15.3.303>
- [3] K. M. Lee, H. K. Yoon, S. Y. Bye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happiness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6, no. 2, pp. 497-514, 2016.
- [4] K. S. Chung, E. S. Choi,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5, pp. 143-163, 2012.
- [5] J. I. Rie, K. Ryu, "Generation Differences and Impacts on Happiness of Work-family Conflicts in Korean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3, no. 3, pp. 471-501, 2010.
- [6] Statistics Korea, 2017 Work Compatibilit, 2017 [cited 2017 Dec 1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5214. (accessed Jun 04, 2018)
- [7] J. H. Lee, E. H.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upon Multiple Role Conflicts and Depression within Dual Employed Coupl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287-303, 2000.
- [8] Y. M. Sohn, C. Y. Park, E. S. Jeon, "Comparative analysis of work-family balance values in Korea, Japan and U.K.: Focused on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21, no. 2, pp. 253-277, 2015.
- [9] S. H. Kim, S. M.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of Dual-Earner Famil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1, no. 3, pp. 355-370, 2013. DOI: <http://dx.doi.org/10.6115/fer.2013.51.3.355>
- [10] M. N. Chang, G. H. Han, "Daily life experiences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The temporal and emotional organization of daily experiences among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Culture*, vol. 23, no. 1, pp. 1-39, 2011.
- [11] E. G. Han, S. A. Kim, "A study on fair parental role model of dual earner couples, their expectation for parental nursing capability and real nursing practi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2, pp. 37-46, 2007.
- [12] E. M. Park, S. S. Lee, "A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happiness of young children's fat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2, pp. 239-262, 2016.
- [13] J. W. Kim, J.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father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9, no. 1, pp. 29-47, 2014.
- [14] E. M. Park, S. S. Lee,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happiness of young children's fat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9, no. 2, pp. 272-294, 2015.
- [15] Y. H. Ahn, S. O. Hong, K. J. Hong, "Relationship of Paternal Participation to Maternal Stress and Happiness in Parents of Disabled Preschool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6, no. -, pp. 49-78, 2016.
- [16] K. S. Chung, J. K. Park, E. S. Choi, B. S. Seo, H. K. Park, "A study of factors which influence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3, no. 1, pp. 153-173, 2013.
- [17] K. S. Chung, S. H. Park, M. S. Yoo, E. S. Choi, "The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 A Child's Age, the Numbers of Children,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4, no. 4, pp. 105-123, 2013. DOI: <http://dx.doi.org/10.5723/KJCS.2013.34.4.105>
- [18] K. S. Chung, E. S. Choi,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5, pp. 143-163, 2012.
- [19] H. O. Lee, Y. H. Kim, "Effects of Mother s Personality, Marital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Young Children on Happin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3, pp. 162-188, 2016.
- [20] E. M. Yeon, H. S. Choi.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eature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0, no. 6, pp. 81-100, 2014.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4.10.6.081>
- [21] M. L. Marshall, R. C. Barnett,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1, no. 1, pp. 64-78, 1993.
- [22]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6, no. 2, pp. 137-155, 1999. DOI: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23] H. R. Song, J. Y. Park, W. J. Lee, M. A. Sung, J. W. Seo, M. J. Chin,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7, no. 6, pp. 91-108, 2009.
- [24] Y. B. Son, E. Y. Choi, "Mechanism of work-family conflicts,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of dual 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4, no. 3, pp. 29-60, 2009.

이 한 나(Hanna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시스템다이나믹스, 지식경영, 비만

한 정 원(Jeong-Won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대장암, 말초신경병증, 비만